


| | | |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 |
| | 배포일 2012년 2월 27일(월) | 언론 담당 | 대변인 정호희 010-6803-6638 부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
| (우)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층 대표전화(02)2670-9100 FAX (02)2635-1134 | | | |

| | |
|--|---|
|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 민주노총 조합원 정책여론 조사결과 - 통합진보당 79.8%, 진보신당 17.6%, 사회당 2.6% - | |
| 보도제한 | 취재협조 |
| 없음 | 이영희 정치위원장 010-6854-2340 박성식 부대변인 010-4806-3142 |

1. 민주노총은 2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4.11 총선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를 위한 조합원 정책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진보당 79.8%, 진보신당 17.6%, 사회당 2.6%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원미달로 4.11 총선방침을 확정하지 못하였기에 조합원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정당명부 집중투표 정당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KSOI(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하여 소속과 전화번호가 취합된 조합원 22만 2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 추진방안은 향후 논의 될 예정이다.

2.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3개 정당 중 정당명부 투표에 집중할 정당을 묻는 것으로, 설문(문항은 첨부자료 참고)은 ARS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응답률은 10.8%이며 16개 가맹조직에서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이번 정책여론 조사결과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는 관계없이 정당명부 집중투표에만 국한해 적용될 것이며, 지역선거에서는 야권단일화를 통하여 집권여당과 1:1 구도를 형성하여 야권승리에 기여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 첨부 : 설문분석 결과보고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

2012. 2. 27.